

상권의 활력을 전국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상권 육성

- 상권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상권 쇠퇴 심화
- 수도권의 활력이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자원·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권을 발굴, 상권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 맞춤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3월 31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금년도 주요 상권사업(3개, 375억원)을 공고하였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역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지역상권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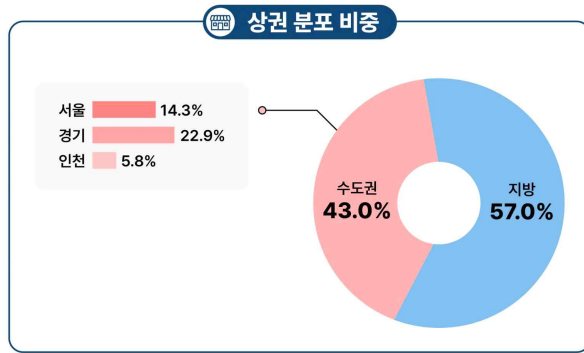
[상권 분석 결과]

전국 기초단위구*의 매출액, 유동인구, 점포 수 등이 인근 지역보다 높은 1,227개 상권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528개(43.0%)이며, 그 가운데 서울에 176개(14.3%)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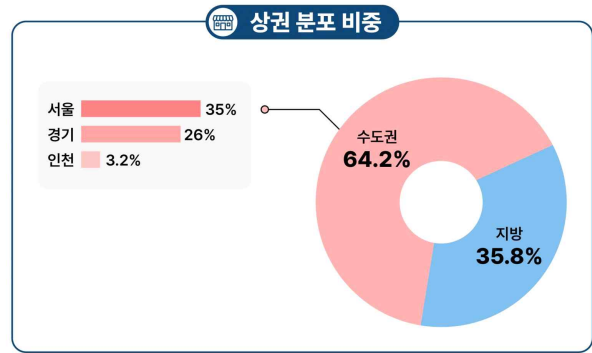
* (국가데이터처) 도로·하천·산간 등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한 지도상 최소단위 구역

상위 10%인 핵심 상권(123개)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79개(64.2%)이며, 그 가운데 서울이 43개(35.0%)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 일반 상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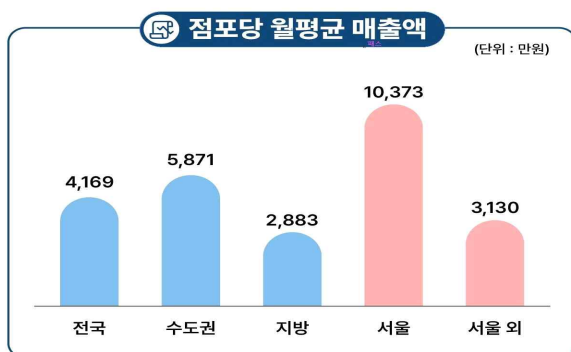
< 핵심 상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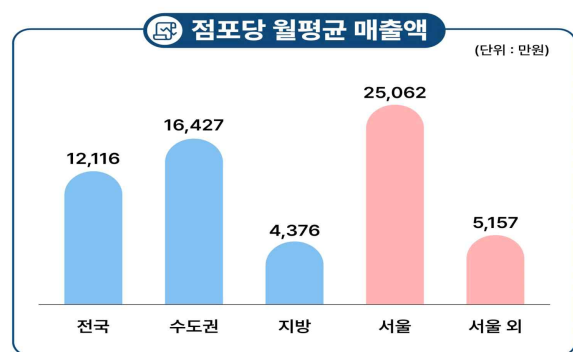
전체 상권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지방이 2,883만원이고 수도권은 이보다 약 2배가 높은 5,871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을 비교하면 서울 1억 373만원, 서울 외 3,130만원으로 격차가 약 3배까지 확대되었다.

핵심상권으로 한정할 경우 지방이 4,376만원이고 수도권은 약 4배가 높은 1억 6,427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을 비교하면 서울 2억 5,062만원, 서울 외 5,157만원으로 격차가 약 5배까지 확대되어 소비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반 상권 >



< 핵심 상권 >



상권당 점포 수는 지방 525개에 비해 수도권이 706개이고 특히 서울 862개로 점포 밀집도가 가장 높았다. 상권당 일평균 유동인구*의 경우 지방 2.9만명, 수도권 3.9만명이며, 서울 4.5만명, 서울 외 3.1만명으로 유동인구 또한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상권 방문 후 15분 이상 체류자(자료 : SKT)

다만, 서울과 서울 외 상권 간의 유동인구의 차이보다 점포당 월 매출액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인 소비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핵심 상권에는 높은 고객 유인 효과로 주변 점포와 상권의 매출을 높이는 핵점포가 있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의 로컬 기업이 핵점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 상권 유형별 맞춤 지원]

이에, 중기부는 지역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상권을 발굴하여, 국내·외 방문객이 지방에서도 쇼핑·체험·관광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상권별 특성·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 글로벌상권 (6곳), 로컬테마상권 (10곳), 유망골목상권 (50곳)

① 글로벌상권 (6곳)

외국인이 서울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국을 활발히 관광할 수 있도록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글로벌상권 6곳을 선정한다. 지역의 K-컬처 콘텐츠 개발, 외국인 전용 가이드, 면세거리 조성 등 외국인 친화적인 상권 조성에 상권당 2년간 5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② 로컬테마상권 (10곳)

지역에서 즐기고 맛볼 수 있도록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테마상권 10곳을 선정한다. 지역 고유의 테마를 담은 특화상품, 상권에 대한 스토리텔링 및 지역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에 상권당 2년간 4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③ 유망골목상권 (50곳)

로컬창업기업들의 집적지, 골목형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유망골목상권 50곳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로컬 창업, 마케팅·브랜딩, 인프라 등 1년간 5억원 규모로 지원하여 상권으로 발돋움시켜 나갈 예정이다.

상권별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상권지원 사업간 연계 모델도 함께 마련한다. 글로벌상권과 로컬테마상권, 백년시장의 개별 상권 단위 지원에서 벗어나 상권 간 투어 프로그램 등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K-관광마켓」,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농림축산식품부 「K-미식벨트」 등을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중심의 상권협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상인·주민·로컬 창업기업·지방정부 등 지역공동체가 함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모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그간 전문가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시각에서 상권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체계가 추진된다. 주부, 학생, 외국인 등으로 국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손으로 직접 평가하여 상권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수도권 중심의 상권 발달로 소비행위가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지방상권의 쇠퇴는 심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지역 활력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24(www.sbiz24.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	책임자	과 장	신재경	(044-204-7440)
		담당자	사무관	민준현	(044-204-7884)
			주무관	표보라	(044-204-7887)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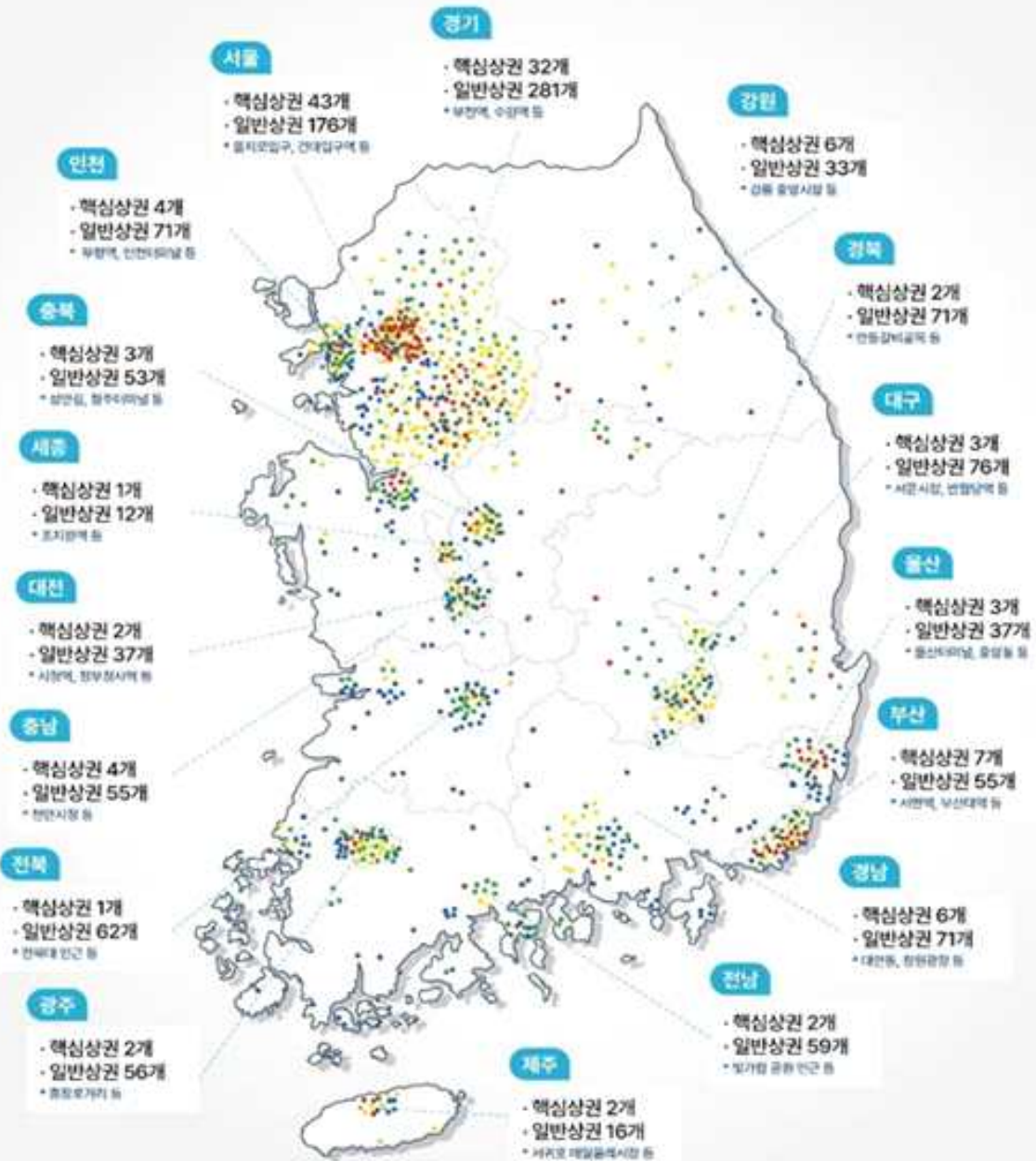
전국 일반(핵심) 상권 분석 개요

구 분	전국	수도권(A)			지방 (B)	차이 (A-B)
			서울	경기·인천		
일반 상권 수(개)	1,227	528 (43.0%)	176 (14.3%)	352 (28.7%)	699 (57.0%)	△171 (△14.0%)
핵심 상권	123	79 (64.2%)	43 (35.0%)	36 (29.2%)	44 (35.8%)	35 (28.4%)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만원)	4,169	5,871	10,373	3,620.3	2,883	2,988 (수도권이 약 2배)
핵심 상권	12,116	16,427	25,062	6,112.5	4,376	12,051 (수도권이 약 4배)
상권당 점포 수(개)	603	706	862	628	525	181
상권당 일평균 유동인구(만명)	3.3	3.9	4.5	3.7	2.9	1.0

전국 상권 현황 ('25. 1,227개)

점포당
월 매출구간

- 5천만원 이상(214개)
- 3~5천만원(307개)
- 2~3천만원(346개)
- 2천만원 미만(360개)



참고 3

지역상권육성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지역자원·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상권을 발굴, 국내·외 방문객들이 쇼핑·체험·관광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상권 유형별 맞춤 지원
 - (글로벌상권)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을 접목, 국내외 방문객이 관광·체험·소비 등 K-컬처를 소비하는 글로벌 관광상권으로 육성
 - (로컬테마상권) 지역의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 등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체험·소비형 특화상권으로 육성
 - (유망골목상권) 지역사회의 생활거점인 골목형 상점가 등에 로컬 창업, 마케팅·브랜딩, 인프라 등을 지원하여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

구분	글로벌상권	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
선정 규모	6곳 내외	10곳 내외	50곳 내외
대상 지역	서울 외 지역	서울 외 지역	로컬창업기업 집적지 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 (공고일 기준)
컨소시엄	①지방정부+ ②상인회 등 상인조직+ ③상권기획자	①지방정부+ ②상인회 등 상인조직+ ③상권기획자	①지방정부+ ②상인회 등 상인조직+ ③상권기획자
지원 규모	1곳당 최대 50억원(2년) * 국비:지방비=5:5 (재정자주도 50% 미만 기초지방정부는 6:4)	1곳당 최대 40억원(2년) * 국비:지방비=5:5 (재정자주도 50% 미만 기초지방정부는 6:4)	1곳당 최대 5억원(1년) * 국비:지방비=5:5 (재정자주도 50% 미만 기초지방정부는 6:4)
신청 제한	• 광역별 2곳 이내 • 기존 사업 지원 중(예정)인 곳	• 기초별 2곳 이내 • 기존 사업 지원 중(예정)인 곳	• 기초별 3곳 이내 • 기존 사업 지원 중(예정)인 곳